내년부터 고교학점제·무상교육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서 지원한다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사립 수업료, 입학금 항목 폐지
고교무상교육, 연 평균 2조 소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 20.79%는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 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납부하던 학비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고교무상교육에는 연평균 2조원이 소요된다. 이 재원 중 절반은 교육부가, 다른 절반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분담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도 수요항목에 신설해 반영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에 교부금을 쓸 경우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2023년부터는 일반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후 2025년 전면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다. 개정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0조5803억

"초등 입학생에 20만원" 추진

교육격차 완화 부문 2조9억 편성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688억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에 이어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여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5119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본예산안 10조5803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383억원(8.6%)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인 11조5836억원 대비 1조33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이를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입학준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는 관련 조례 제정을 협의 중이다. 예산상 한계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입학준비금은 20만원 수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중점사업은 ▲교육회복 지속 지원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실현 ▲행복근육 다지기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포함한 교육격차 완화 부문이다. 이를 위해 2조9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공립유치원 13개원 신설에 177억원 등 유치원 지원 예산에 5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스마트 휴대 학습기기 구입 및 디지털 튜터 확충에 537억원, 초1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낮추는 과밀학급 해소에 15억원을 쓸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정서 결손 극복을 위해 404억원이 편성됐다. 중·고등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에 142억원, 초등학교 교과보충사업에 135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운영에 5119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와 재원 분담에 대해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육 688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20억원 ▲진로직업교육 550억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지원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이현진 기자

'세계 첫 드라이브 스루 검사' 경북대병원 경영평가 '우수'

교육부, 4개 국립대병원 '우수 평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도입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4개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탁월)'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교육부는 9일 국립대병원과 기타공공기관 총 19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등 총 14곳은 평가 1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기타공공기관은 2유형으로 나뉘었다.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S등급과 D,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1유형 국립대병원 중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경북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곳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이후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평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업무 부담을 고려해 1년간 생략했으며, 올해는 경영평가가 예정대로 시행됐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도입한 노력으로 가산점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지표 중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에 따라 3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경증·무증상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가점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병원은 강원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7곳이, C등급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등 3곳이 받았다.

2유형에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가장 높은 A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이 B등급, 한국학중앙연구원이 C등급을 받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행복기숙사 내 외국인 유학생·유증상자 격리시설로 행복기숙사를 활용하고, 임대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특강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가 중앙대에서 열린 특강에 강연자로 참여해 청중들과 교감했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5일 중앙대 사진센터(CCP) 주관으로 카스텔무르 대사를 초청해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포토북 라운지 토크' 5회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카스텔무르 대사는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선보여 온 스위스를 대표하는 작가 듀오 '페터 피슐리와 다비드 바이스'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박상규 중앙대 총장, 카스텔무르 대사 부부, 백준기 교학부총장이 '포토북 라운지 토크' 5회차 행사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

심가용 숭실대 교수, BRIC '한빛사' 선정

암 면역세포 활성화 논문

숭실대학교는 심가용 자연과학대학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사진)가 유전자 편집을 통한 종양 전이 억제 관련 논문으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주관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심가용 교수는 최근 미국화학회(ACS) 나노분야 저명 학술지인 'ACS Nano(피인용지수 15.881)'에 '유전자편집 매개 종양미세환경 재구성을 통한 종양 전이의 억제'논문을 게재했다.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해당 논문에서는 종양의 면역회피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GF-β(형질변환 성장인자)'를 유전자편집으로 억제하는 것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이용해 암세포가 더 이상 TGF-β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유전자 편집을 했고 그에 따라 암세포 주변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욱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근적외선 빛을 조사하면 열을 발생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광치료 기술'을 접목하여 원발성 종양세포는 물론 암전이까지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정석아카데미 북새통 강연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은 문과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정석아카데미 북새통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문학, 과학에게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강연을 진행한다. 인천수봉도서관과 협력해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들을 수 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강연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11월 10일에는 박선주 인하대 영어교육학과 교수가 '바둑, 알파고, 지능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시작한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딥러닝 모델 경량화 학습기술 개발

강우철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교수

인천대학교는 강우철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교수(사진)팀이 딥러닝 모델의 크기는 최대 절반으로 줄이면서 정확도는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오는 12월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에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논문명은 '매개 변수 효율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을 위한 심층 공유 필터 기반'이다.

강우철 교수팀은 딥러닝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재사용해 모델의 크기를 줄일 경우에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학습신호인 그레이디언트가 소멸하거나 폭발함으로써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필터들을 직교화시키는 학습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은 이미지 분류, 물체 검출, 이미지 분할 등의 다양한 딥러닝 작업에서 딥러닝 모델의 사이즈는 최대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일관되게 인식 정확도는 향상시켰다.

해당 연구는 인천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김대연 석사학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는 세계 최고 권위 인공지능(AI) 학회로 머신러닝, 신경과학 등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이현진 기자